

**예배 및 모임안내**

2020-11호 2020년 03월 15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일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주일 예배 봉사위원**

	03. 22	03. 29	04. 05
대 표 기 도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김대형 형제
헌 금 위 원	황희순 집사	김영희 권사	박재기 집사
안 내 위 원	이수현 집사	이수현 집사	황희순 집사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영의 양식으로 삼시다(출28~40장, 수1~6장)
2. 사순절(2월26일~4월9일) - 말씀과 기도로 경건생활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3. 안내 - 주일예배 외 다른 모임은 3월 29일까지 쉬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4. Love-N-Care(예수파담 목사) 주관 예배당 건축헌금을 드립니다(22일, 500유로)
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각별히 조심하세요.
6. 나눔의 시간 - 3월 29일(주일)까지 친교시간은 갖지 않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정미진 성도(21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기도와 나눔에 힘쓰고 각 기관, 구역이 활성화 되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3. 사순절

- \*송 영 Chor .....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 정용현 안수집사
- \*찬 송 Gemeindelied .....154장..... 다같이
- \*성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126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338장..... 다같이
- 기 도 Gebet .....한명희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 요 7 : 34 - 44(신p157)..... 한명희 집사  
(Johannes 7:37-44)
- 설 교 Predigt .....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340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2절).....박재기 집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5장.....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 친교실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예수님

몇 년 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출판돼 관심을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는 격려와 위로, 용기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잘하려고 해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좋은 동기로 시작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잡아주고 세워주는 어떤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실수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셨습니다.

사람은 고무줄과 같은 존재입니다. 고무줄은 세계 잡아당기면 팽팽해지지만, 그 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원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스스로 팽팽해지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옛날 자신의 습관이나 성격으로 되돌아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해주신 다음 특별히 정서적으로 기복이 심한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격려해주시면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격려하는 부모로 인해 자녀들이 살아나고, 격려하는 친구로 인해 다른 친구들이 회복되고, 격려하는 사역자로 인해 양 떼가 바로 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승리에로의 초대 / 故 하용조 목사

\* 나는 수 많은 책을 읽었지만 나를 읽어 낸 책은 성경뿐이었다.

- Dr. George Sweeting -